

광정보통신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광통신 인력양성의 새모델 제시

광통신부품 및 광교육사업 및 기술컨설팅 주사업

노바옵틱스(대표 서기원 www.novaoptics.com)는 “Global Network의 광속화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각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광통신 전문기술보유업체이다.

서기원 사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대우통신에서의 연구개발 및 현장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 1월에 법인으로 설립된 노바옵틱스는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사업내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 사업으로는 광통신 제품제조 및 영업을 포함한 TFO(Total Fiber Optic)사업 분야와 광통신 교육사업 및 기술컨설팅사업을 포함하는 IFO (Intellectual Fiber Optic)사업 분야로 분류되어진다.

TFO사업 분야에서의 광통신제품 제조사업은 핵심 수동연결소자 개발위주로 진행해나가며, 원천기술 획득 및 개발기술의 조기 상용화로 세계시장을 선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단계로 법인설립 4개월 만에 2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건의 특허출원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제조사업 분야에서는 기존 우수한 제품생산 노하우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특허를 바탕으로 금년 내에 제품의 생산을 목표로 생산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노바옵틱스가 주력하고 있는 개발제품으로는 현재 WDM으로 구성되어지는 광 백본망에서의 핵심소자인 광스위치와 OAD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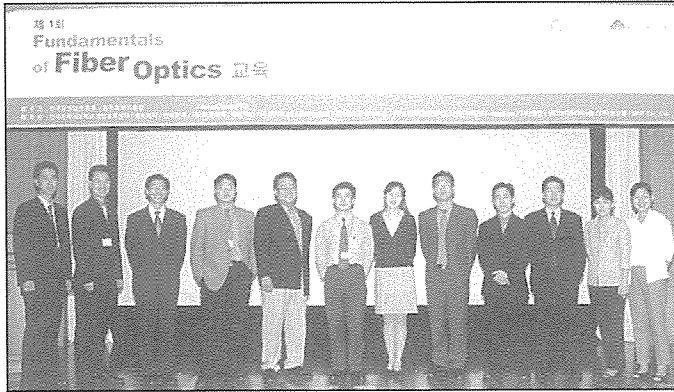
우선 다대다 접속의 WDM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광스witch는 광섬유 전송로 가운데의 광로를 교환해 주는 부품으로서 방식에 따라 기계식과 비기

계식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기계식은 전자력과 압전 효과를 이용하여 회선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교환속도는 늦지만 낮은 삽입손실과 낮은 누화 등의 특성을 배경으로 기존부터 광섬유 링크 등에 실용화 되고 있는 제품으로 이미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기반기술 및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비기계식에는 전기광학효과, 자기광학효과, 초음파에 의한 음향광학효과를 이용한 방법이 있으며 이중 광백본망과 가입자망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위해 제품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회선내에 특정한 파장을 분기/삽입시키는 OADM은 간선계와 중계/전송계, 중계/전송계간, 또는 중계/전송계와 액세스계와의 노드 디바이스로서 광통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이다. 향후 광통신시장을 이끌어 나갈 핵심 광통신부품의 개발을 통하여 노바옵틱스는 세계적인 광통신 부품제조업체로서 위상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별화된 기술영업을 통해 제품 신뢰도 높여

그리고 노바만의 독특한 제품영업은 차별화된 기술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기적인 기술세미나를 실시하고 직접방문을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서 구매의욕을 창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영업의 결과로 2002년도에 설립된 업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의 국내외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업체의 제품을 판매대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및 아시아의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함으로써 매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IFO사업 분야의 기술 컨설팅 사업은 광섬유/광케이블/광소자 제조를 원하는 업체에 대해 핵심 설계 및 제조기술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1993년 플라스틱 광



섬유 연구를 시점으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KT 공동연구과제인 리본형 광케이블 개발, 1997년 옥내용 광케이블 개발, 2000년 가입자용 케이블 및 관련 소자류 개발 등을 일궈낸 직원들의 축적되어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진다.

건설링 내력으로는 Loose tube & Tight buffered cable 건설링, 플라스틱 광섬유의 기술보고서 등의 국내 건설링과 광섬유 및 광케이블 제조를 위한 Plants simulation 건설링을 1차로 러시아에 진행하였으며 일본, 중국, 인도 등에 건설링 의뢰를 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중 추가로 2건 이상의 건설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IFO사업 분야의 다른 부분인 광통신 교육사업 분야에서는 "EduPhos"라는 사업부 브랜드를 내걸고 지난 4월 한달간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강당에서 "제1회 Fundamentals of Fiber Optics 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번 교육에서 백운출 교수님을 비롯한 국내 광통신분야의 각계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매회차마다 120~140여명의 교육생이 참가하여 광통신 교육에 대한 국내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은 광통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 및 학생들이 원하고 있던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주변의 평을 받았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육생으로부터 추후 필요한 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2회 Fundamentals of Fiber Optics 교육"의 지방순회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편중된 일부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광통신의 새로운 붐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광통신 제품의 제조 및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광통신 정규교육과정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은 광산업 분야가 미래의 국가지정 육성산업으로

그 비중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광산업분야의 발전을 위해 여러기관들이 생겨나고 광산업의 다양한 분야만큼이나 관련 벤처업체들이 생겨나는 추세 속에서 필요한 광산업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것이다.

광통신기술 교육 통해 인력양성 앞장

노바옵틱스는 향후 교육사업분야를 확대하여 광통신분야의 교육만이 아닌 광통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과 연계하여주는 리쿠르트, 국내광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전문 컨퍼런스와 세미나 그리고 국가인증제 도입 및 자격증의 신설을 점차적으로 넓혀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바옵틱스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1/4분기에 진행되어진 사업결과를 인정받아 국내외 유력 벤처캐피털에서의 상담이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금년 5월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자본 투자를 유치하였다. 법인을 설립한지 1/4분기밖에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으로서 외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회사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보여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재/기획홍보팀 윤희진>

